



# 월드와치리스트 2024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월드와치리스트 2024 보고기간 2022년 10월 1일 - 2023년 9월 30일

기독교 박해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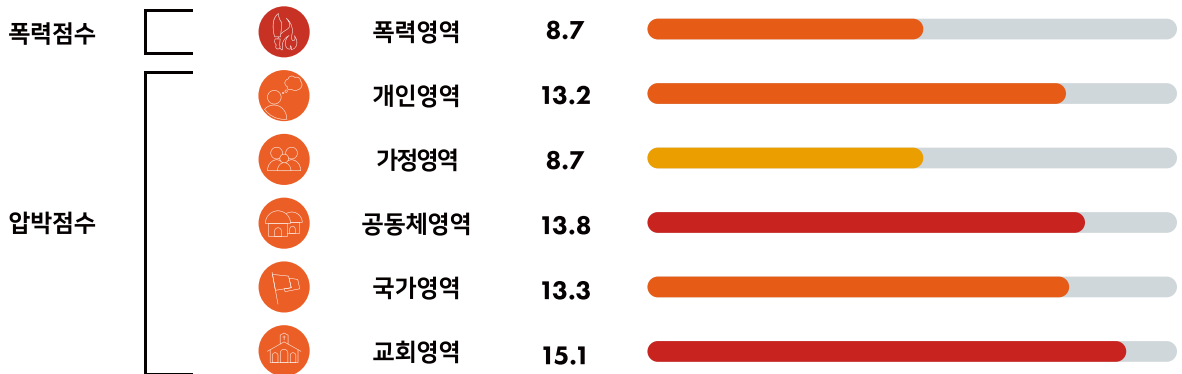
22위

## 쿠바 (CUBA)



©Alamy

### 폭력과 압박의 정도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박해지수 총합은 100점이다 (16.7 x 6개 영역=100).

### 주목할 만한 점 (Key findings)

1959년 이후로 쿠바는 공산당에 의해 지배되어 왔으며 공산주의 사상에 따라 교회를 통제하고 있다. 정부는 반대 의견의 소리나 시위자들에게는 가혹하게 대한다. 교회지도자나 기독교 활동가들이 정권을 비판하면 체포, 조직적 인신공격, 이동 제한, 징역형, 그리고 정부와 그들의 동조자들에 의해 고문 (보통, 물리적 폭력을 포함하는 "배격 행위" 라고 불리는) 을 당한다. 또한 교회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통제의 목적으로 새 교회가 등록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게 한다. 후에 당국은 그런 교회에 대해 면허 거부, 벌금, 재산 몰수, 교회 폐쇄(가정 교회를 포함하여)와 같은 처벌을 내린다.

# 쿠바 (CUBA)

## 국가 정보

지도자 :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

인구 : 11,291,000

기독교인 수 : 6,966,000<sup>1</sup>

주요종교 : 기독교

정부형태 : 공산주의 국가



## 국가 상황

주요 종교	신자 수	비율 (%)
기독교인	6,966,000	61.7
기타	1,946,760	17.2
불가지론자	1,869,000	16.6
무신론자	467,000	4.1

자료 2

2019년에 쿠바는 유일당인 공산당 대표로만 구성된 국회를 통해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으며, 이로써 60년 동안 지배하던 카스트로 가족의 통치를 마감하였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자/공산주의자가 여전히 사회를 장악하고 있다. 쿠바는 미 국무부에 의해 특별관리국가 (CPC) 로 분류된다.

그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2022년 5월에 새로운 형법이 정부에 의해 승인되었다. 국제 앰네스티 (AI, 2022년 12월 2일)에서 발행한 일부 "경고적 측면"에는, 활동가들에 대한 침묵, 투옥, "헌법 질서와 정부의 정상적 기능에 반대" 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시스템 붕괴,

건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 식량과 에너지의 불안정, 그리고 여러 문제를 야기하는 정책들로 인해 정부에 대한 반대가 높아지고 있다.

WCD 2023년의 추산에 의하면, 쿠바 기독교인 88.7%가 가톨릭이다. 그러나 다른 기독교 교파들, 특히 오순절 교회와 관련된 교파들이 대중들 사이에 눈에 띄게 드러나며 수용도가 높다. 지역 교회들이 외국 기부를 통해 받는 소액 후원으로 계속적인 감시의 대상이 되고, 벌금을 물거나 당국에 의해 괴롭힘 받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쿠바의 국내 자료에 따르면, 교회에게 전하여 진 비금전적 기부는 몰수당하거나, 되팔거나, 심지어 정부에 의해 파기되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기독교 사업자들 (대부분 목회자들)을 향한 보복 조치로, 124개의 자영업자 금지 활동에 포함되었거나, 반정부자들을 지원하였다는 이유를 내세워 경제적 보복을 통해 이들의 영세 사업장에 임의적으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폐쇄되기도 하였다.

정부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하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지도자들은 정부 탄압으로부터 고통을 겪는다. 성직자들과 목사들은 경찰서로부터 잦은 소환, 죽음의 협박, 전횡적 체포, 보안 요원에 의한 신체 공격을 당하며 (Marti Noticias, 2022년 2월 11일), 정치적 수

<sup>1</sup>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3년 3월)

<sup>2</sup> Others include Chinese folk, New religionist, Sikh, Spiritist, Taoist, Confucianist, Jain, Shintoist, Zoroastrian. Data source: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3년 3월)

감자로서 당하는 고문, 가택 조사, 압수, 교회 건물과 집의 파손, 강제 추방까지 직면한다 (CSW, 2022년 3월 3일). 교회 지도자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일하거나 기독교 네트워크 종사자들, 사회 통신망을 통해 체제 비판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학대를 당한다 (Vida Cristiana, 2021년 11월 4일).

쿠바는 미국과 불안정한 관계에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외교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업, 경제, 금융의 금수조치를 통해 제재 정책을 내렸다. 쿠바 정부 관리들이 반정부 시위자들에게 강압적인 탄압을 한 후,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7월에 쿠바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그러나 2022년 5월에 바이든 정부는 쿠바에 대한 규정을 이완시켰다.

## 지역별 상황

세계 기독교박해지수 2024의 보고 기간 중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사건은 전국적으로 등록되었는데, 특히 동부와 수도지역에서 더욱 심하였다.



## 박해받는 성도

### 이주민 기독교 공동체

이 범주는 기독교 박해지수 점수 기록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는 로마 가톨릭교회, 정교회가 있으며, 개신 교회로는 감리 교회, 장로 교회, 루터 교회, 감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이들은 감시를 당하며, 공산주의 사상과 대립되는 자료나 설교가 발각되거나, 반대자들, 특히 청년들을 지지하면 국가적 탄압을 직면한다. 그들은 또한 정치적 교회 지도자들과, 이념적 압력 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체제 동조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이런 교회는 국가의 공식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공산 체제의 일부인 쿠바 교회 협의회에 가입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 그들은 무등록 교회인 비전통 교회 집단으로 취급 받고 시달리기도 한다.

###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

여기에는 다른 교파에서나, 산테리아 혹은 공산당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개종자들은 자주 정부 관리로부터 거부를 당하며, 반체제 여겨지는 교회에 다니거나, 교회 지도자가 반혁명주의자로 간주될 때 그들은 보복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협박과 적대감을 통해 개종을 막고 교회의 성장을 저해한다.

###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들은 주로 오순절 교회, 복음주의 교회, 그리고 침례 교회를 포함한다. 이들은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가톨릭)와 같은 도전에 직면해있을 뿐 아니라, 이들은 등록되어 있거나, 국가 승인을 받은 교회들처럼 시민 평등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불법적인 활동가로 내몰리고, 그들이 하는 어떤 활동이든지 벌금이나 박해의 구실로 사용된다. 대부분, 그들은 가정 교회에서 비밀리에 모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고, 체제나 당의 과격분자들에 의해 발각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

## 박해와 차별의 주된 요인

### 세속 불관용과 혼합된 공산주의와 공산주의 이후의 탄압

쿠바는 혁명(1953-1958) 이후에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 나라는 여전히 같은 정치적, 경제적 모델을 따라 지배되고, 새 헌법으로 공산당을 더욱 강화하였다. 공산당 이념에 순응하는 것이 헌법의 요구 사항이며, 누구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표적이 되거나 탄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새로운 가족법(Family Code)을 시행함으로써,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가족 모델에 대한 교회의 처벌이 증가했으며, 정부가 장려하는 이념적 원칙을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 부모를 범죄로 몰아 정당화 하는 것이 이행되기도 한다.

### 독재 정치

이 체제는 공산주의와 후 공산주의 (post-Communist)의 억압이 함께 혼합되어 있다. 공산당이 헌법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정당임을 고려할 때, 누구든지 그들의 지도자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는 - 신앙이나 어떤 이유에도 불문하고, 체제의 적으로 분류된다. 기독교인들이 체제에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할 뿐 아니라,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를 받으려면, 자신의 신앙을 거부하라고 강요받는다. 부패와 불처벌은 전체 공산당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정부는 모든 단계마다 국가 기구를 통제하고, 법치를 보장하는 독립적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교파의 기독교인들에게도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자신을 표현할 합법적인 여지는 없다.

## 남성과 여성의 박해 상황 차이

### 여성

기독교인 여성은 보수적인 성적 가치 때문에, 특히 낙태에 연관되어 종종 도전에 직면한다. 정부에 반대하여 말하는 여성 활동가들은 보통 해고되고 위협을 받으며 감시를 당한다. 경찰들은 계속하여 예배를 드리러 다니는 "Ladies in White" ("흰 옷 입은 여성", 정치범들의 친척이 설립한 단체)를 학대하고 구타한다.

###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의료 서비스 - 제한/거부
- 투옥
- 폭력--신체적/정신적/언어적

### 남성

기독교인 남성, 특히 남자 목회자들이 체포되거나 학대를 당하기 쉬운 것은 그들이 보통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며, 자신들의 기독교 신앙에 근거하여 정부의 행동에 비판을 하기 때문이다. 2021년 7월 시위 후에 구금이 현저히 증가하였고 그들은 구타, 체포, 기독교 문헌 몰수, 재산 파괴,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 강제 징병에서 기독교인 남성은 그들의 신앙이 밝혀지면 더욱 취약점을 가진다. 차별과 박해의 정도는 부대장의 태도에 좌우된다.

###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기독교 자료, 강의, 의식에 대한 접근성 거부
- 상속 또는 소유권 박탈
- 사업 / 직업 / 일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마을 / 국가에서 강제 추방
- 투옥
- 군대 / 민병 징집 / 양심에 반하는 복무
- 폭력 - 신체적 / 정신적 / 언어적



## 쿠바 기독교 박해지수 5년 동향

연도	오픈도어 기독교 박해지수 순위	박해점수 (100점 만점)
2024	22	73
2023	27	70
2022	37	66
2021	51	62
2020	61	52

쿠바의 박해 점수는 전반적인 탄압과 폭력이 증가한 관계로 3점이 올랐다. 생활과 폭력의 영역에서는 교회 건물과 기독교인 재산이 공격을 받음으로 인해 박해 지수에서 7.0에서 8.7로 약간의 상승이 있었다. 기독교 지도자들과 활동가들이 정부의 인권 유린에 대해 부각시키거나, 항거자들을 후원하고, 반체제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에 대한 탄압은 최근의 가족법에 반대하는 곳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 강화된다. 이런 공개 발언을 하는 사람은 갑작스런 체포를 포함하여 여러 형태의 표적의 대상이 된다.



##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 (2022년 10월 1일-2023년 9월 30일)

- **2022년 10월 - 산티아고 드 쿠바:** 목사의 아내이자 인권 운동가인 Lorenzo Rosales는 감옥에 있는 남편을 학대한 정부에게 항의하였다. 그녀의 남편은 7년 형을 받았으며 감옥의 간수와 보안 요원에게 끊임없는 고문을 받았다. (Ciber Cuba, 2022년 12월 12일)
- **2023년 4월 - 하바나:** 예수 오브레로 교회는 기물 파손자가 교회를 부수고 들어와 기물 파손의 표적이 되었다. 교구 신부 L ster Rafael Zayas D az는 쿠바 체제에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Cibercuba, 2023년 6월 15일). Sacred Heart of Jesus in Havana 교구는 또한 , Lester 신부의 관할 아래 있는데, 3월에 이상한 상황으로 손해를 입었다. (Cuba Cute, 2023년 3월 8일), 6월 (Cubanos por el mundo, 2023년 6월 16일) 그리고 8월 (Ciber Cuba, 2023년 8월 7일).
- **2023년 4월 - 카메구이:** The Observatory of Academic Freedom은 7살 여아와, 공범인 학교 직원을 학교 수업 시간에 체포하였으며 그녀의 어머니도 구금하였다고 보도하였다. 2022년 3월, 그녀의 어머니인 활동가 Marisol Pe as Cobas는 "자신의 딸에게 혁명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지 않은 것" 때문에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반대하는 행동"으로 고발되었으며 2,000페소의 벌금 후에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보고 연도	구금 당한 기독교인	투옥된 기독교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학대 당한 기독교인	사유재산 파괴 물수 당한 기독교인
2024	80	12	18	3
2023	44	4	18	2

이 표는 보고 기간 발생한 신앙 관련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결과는 Full Country Dossier의 폭력 영역에서 확인 가능하다. 많은 사건들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수치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상징적인 어려움이 주어졌고 (10\*, 100\*, 1000\*) 이 결과들은 실제로 상당히 더 높을 수 있다.

## 개인 영역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국가에 의해 면밀히 감시를 받는다. 특히 COVID-19 이후에는 징계의 수위는 더욱 높아졌고, 그로 인해 인터넷 접속과 여행은 금지되고,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막히게 되었다. 실제로 모든 쿠바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든 소셜 미디어와 전화 통화 내용이 정부와 자동 감지기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독교 인권 활동가들과 정권에 의의를 제기하고 도전하는 이들은 임의 체포와 가택 연금을 당하여 가족과 교회로부터 분리된다. 때로 그들은 누구와도 접촉하지 못하고 치밀한 경찰 감시 아래 자신의 집에서 연금되어야 한다.

## 가정 영역

국가가 어린이들의 주 교육자로 간주되고, 공산주의 교육은 학교의 필수 과정이다. 매일 아침, 모든 학생들은 손을 들고 맹세한다: "우리는 체와 같이 되겠습니다" (체 게바라는 공산주의 아이콘이다). 자신의 자녀를 국가 공산주의 가치와 가족의 역할에 대한 이념적 기준에 따르지 않는 부모는 법적으로 심문, 협박, 체포, 징역과, 자녀 양육권을 박탈 당할 수 있다. 인권 옹호에 개입된 기독교인의 자녀들은 "혁명의 원수"의 자식들로 여겨져 심문이나 감금을 당할 수 있다. 정부를 반대하는 기독교인은 때로 가족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가족이 장기간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공동체 영역

정권을 지지하는 과격 분자들과 동조자들은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한다. 신앙에 관한 의견을 표현하거나 체제에 반대하는 일에 참여한 이들은 반체제 인사로 여겨지고, 감시의 대상이 되며, 고용 차별과 의료 시설 접근 금지와 국가의 정부 보조금 차단과 심문의 대상이 된다. 혁명수호위원회(CDR)은 정부의 주요 정보원이며, 그들의 목표는 다른 시민들과, 공산당의 과격 분자들, 그리고 관리들의 도움으로 반공 사상의 확산을 제거하는 것이다. 모든 학생들은 기독교인을 포함하여 대학교까지 마르크스 사상을 의무 교육으로 배워야 한다. 만일 그들이 강제 세뇌를 거부하면 더 이

상 교육을 받지 못한다. 때로 공무원들은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활동의 제한을 조금 완화해주고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위협의 감수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금전 요구는 "사적, 자의적 약정"이므로 법적 효력은 없으므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 국가 영역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특히 최근에는 "반란"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370조의 새로운 형법과 가족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 기독교 단체, 종교의 자유 옹호자나, 혹은 국가의 인권 및 시민권 위배와 공산주의 모델을 버려야 한다는 주장이나, 결혼의 순결에 대해서나 (가족법 투표에 관해), 또는 카스트로 가족의 부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기독교 인권 활동가들은 체포, 차별, 인신공격, 임의적 구금, 벌금, 기소, 이동 제한, 검열, 재판정에서의 부당함과 그 외에도 많은 괴롭힘을 당한다. 그런 제한을 겪는 많은 기독교인과 그들의 가족은 미등록 교회에 속해있으며, 특히 이들은 정부의 부당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쿠바 복음주의연맹과 다른 새 기독교 단체에 속해 있다. 정권은 사법제도에 대해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있으며, 판결은 항상 국가에 유리하게 이루어지며 불처벌이 보장된다. 따라서 기독교인을 위한 절차적 보장 권리나 적법 절차에 대한 권리를 통하여서는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한다.

## 교회 영역

쿠바의 소수 교회만 1959년 공산주의 혁명 이전에 등록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된다. 그 이후 대부분의 경우에, 교회의 등록은 다른 단체와 목적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로, 혹은 지원자의 활동이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공산당의 사상에 어긋나는) 명목으로 거부되었다. 그 결과로, 많은 교회가 등록되지 않은 불법 단체로 여겨진다. "혁명의 원수"로 간주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등록은 거부된다. 끊임없는 국가의 보복으로 공적인 문제, 특히 가족법에 논란을 초래하는 정치적인 문제나, 정치범을 지지하거나, 빈곤한 자들을 돕거나, 경제적 위기에 대한 해결에 대한 요구하는 교회에게는 등록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들의 설교가 끊임없이 감시되고, 공산당 정부가 사회적 영향을 장악하기 때문이다.

##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쿠바는 다음 국제 조약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방지 협약 (CAT)
4. 여성차별철폐 협약 (CEDAW)
5. 유엔 아동권리 협약 (CRC)

*\*쿠바는 ICCPR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는 않았다.*

쿠바는 다음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자주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이유로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차별을 직면한다 (ICCPR 제 26조)
-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권리를 강력하게 변호한다는 이유로 체포를 당한다 (ICCPR 제 9조, 19조)
- 기독교인들은 체포를 당하면 그들의 신앙을 버리도록 구타와 압박을 경험한다 (ICCPR 제 18조, 10조)
- 기독교인 자녀들은 학교에서 배척을 당하고 압박을 받는다 (ICCPR 제 18조, CRC 제 14조, 24조)

## 이외 소수 종교 집단의 상황

쿠바 자유 요루바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산테리아의 종교 지도자들과 소속인들은 자주 정부의 학대의 표적 대상이 되며, 무슬림 공동체 대표들은 차별 (예를 들면, 여행허가 거부)을 당한다.



## 오픈도어의 쿠바 사역

오픈도어는 다음을 제공함으로써 쿠바의 박해 받는 교회들을 강화한다:

- 성경적 및 기독교 문헌 배부
- 생계 프로젝트
- 성경적 훈련
- 약화된 교회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도력 개발 프로젝트
- 사회 경제 개발 / 대외 원조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교회에 대한 자기 의존성을 높이는 복원력

